

# 주택난방의 연료가 변화되고 있다

##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난방연료도 고급화 추세에 돌입

**미래** 를 바라본다는 것은 답답한 현실에서 무엇인가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준다. 모든 문제들이 마치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현실에서 특히 우리 온돌인들이 직업적인 개념으로 앞일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를까? 허나 필자는 가슴이 벅차 오르는 감격을 느낀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우리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집집마다 방은 썩고 연탄불은 자주 꺼지고 연탄가스에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아랫목만 새까맣게 탄 온돌을 수없이 보아 오지 않았던가. 좀더 따뜻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기술자 인지 어떻게 시공을 하면 모든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지 아마 온돌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의 숙제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시간



양한규  
前 온수온돌기술지도원 원장

이 흐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온돌에 관한 KS규정이 제정되어 표준시방서가 나오고 국가 기술 자격제도가 생기면서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 온돌문화는 발전되어 가고 있다. 허나 그리쉽게 온돌이란 숙제가 우리세대에 풀릴수 있을지 우리

는 이자리에서 온돌이란 개념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4시간중 지구촌에 있는 사람은 평균 8시간 누워서 잠을 잔다. 부득이 웅크리고 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루 위에서, 다다미 위에서, 침대 위에서, 또는 온돌위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온돌위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과연 외국사람들이 사용하는 침대나 다다미나 마루바닥이 한국 온돌보다 편하고 좋은 것인지. 그런데 다행이도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형 온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온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관심있는 외국인들은 많은 느낌을 갖는다. 그런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온돌을 보면 기겁을

**온돌은 온돌인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매년 답습해오던 연탄보일러의 시공에서 좀더 발전된 연료를 온돌에 대입 시킨다면 온돌은 세계인의 선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온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난방을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후세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온돌도 세계에서 하나 뿐이지만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직접 난방에 이용하는 곳도 한국 뿐이다. 100점짜리 온돌을 갖추고 있으면서 0점짜리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온돌이 세계인의 관심을 좋은 의미에서 살수가 있겠는가. 아쉬운대로 초목을 사용하여 난방을 했던때만해도 아늑한 방안에서는 정취가 물신 물신 넘쳐 있었지 아니한가. 그런데 해방후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하니 옛 정취는 사라지고 그 무서운 연탄가스과 40년을 살아왔다. 현

재에도 통계에 의하면 75% 정도가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난방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연탄보일러의 전망은 어떤가. 필자는 여기에서 몇가지로 분류해서 독자들의 판단을 얻고자 한다.

1. 연탄가스에 의한 공해는 심각하다.

연탄이 연소중 발생되는 CO 가스는 인명을 해치며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킨다. 또한 아황산 가스나 유화수소는 모든 물체를 부식시키며 환경에 불쾌감을 더해준다. 또한 연소기구의 수명을 짧게 하여 몇년에

한번씩 재시공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2. 에너지의 낭비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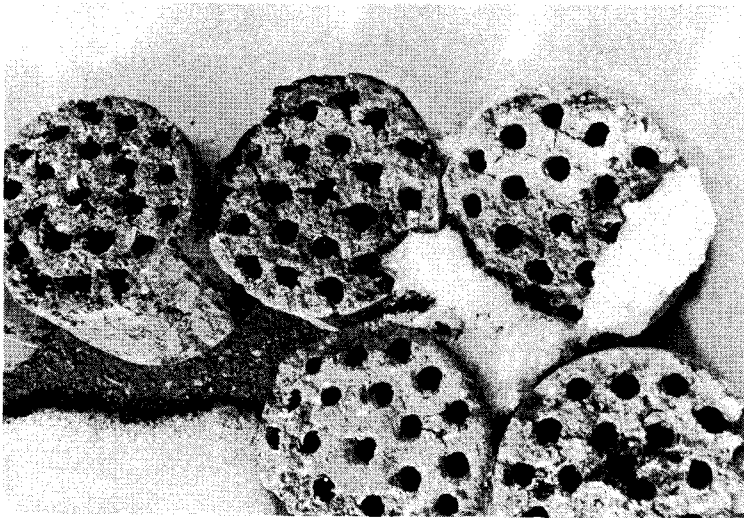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연탄이 연료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연소를 잘시키고 시공을 완벽히 하여 사용자가 관리를 철저히 할때는 좀 다르다. 그러나 비교적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은 영세한 쪽이므로 더욱 보강되어야 할 점들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보온의 정도나 시공에 사용하는 원자재가 하급품 이고보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설령 시공을 잘했다 해도 고온의 열을 보온하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실제 열효율은 50% 미만이고 보면 가장 비싼 고급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3. 건축학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않다.

우선 연탄을 한두장 사울릴 수 없는 형편이기에 한해 겨울을 난방할 수 있는 저장 창고가 필요하다. 요즘 건축물은 집단화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연료를 저장 할 수 있는 시설과 연탄재를 처리하는 시설이 뒤따라야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탄가스에 의해 건축물의 부식속도가 가속화되어 건축물의 수명에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아해도 엄동 설한에 산꼭대기 APT 상층까지 연탄을 저나르는 고층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는 때에 상용하는 노동력에도 문제가 있다.

4. 현실적인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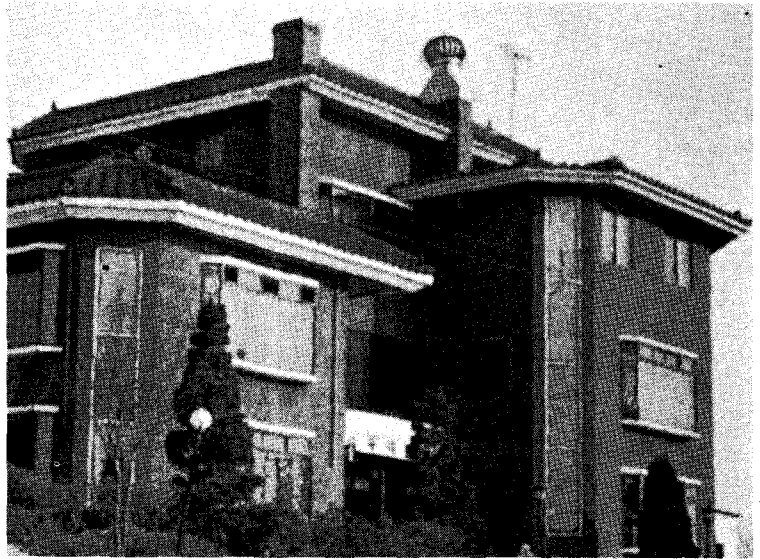
필자는 이세상의 모든것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대로가 아니고 때에따라 결정되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어제까지의 최고의 확신이 오늘 아침에는 바뀔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에 나무가 많을때는 나무의 사용처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그와같은 일치된 견해하에 나무의 사용처를 개발하는 것이다. 해방후 산에 나무가 없고 황폐해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사신과도 같은 연탄을 숙명적으로 등밀에 두고 생활하였던 것이다. 학생들은 산에 나무를 심고 나무꾼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하며 사회는 변모해 왔었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빠 말은바 일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좀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내일과 싸워나가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흑한 흑서로 부터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온돌이 만들어졌다면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밖은 겨울인데 안방은 봄이나 가을을 만들고 싶어하는게 오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하루종일 사람도 없는데 난방을 해줄 필요도 없다. 필요할 때에 즉시 즉시 필요한 온도를 구하는 세상인 것이다. 우리 온돌인들이 생각해야할 점이 여기에 있다. 100점짜리 온돌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0점짜리 연료를 꼭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인가.

연료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태양열, 지열, 원자력, 석유, 가스, 에너지는 개발하기에 따라 무한 할수도



있다.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좋은 에너지를 개발해야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스웨덴 같은 추운국가에서는 잠열 축열캡슐을 만들어 배에 싣고 남쪽 적도에 가서 축열캡슐에 열을 저장해 와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선조들이 물려준 100점짜리 온돌문화를 창조한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누가 도와 주지도 않는다. 나무가 많았을때 나무를 소모시키는 방안으로 서민들에게 온돌의 시방서를 내려준 이조중엽 김자점대감의 판단력에 놀란다. 온돌은 온돌인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매년 답습해오던 연탄보일러의 시공에서 좀더 발전된 연료를 온돌에 대입시킨다면 온돌은 세계인의 선택이 될수 있을 것이다. 온돌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우리나라에만 보급시킬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알려 한국인의 지혜를 알

릴수 있다면 온돌인의 전망은 환하고 발전적일 것이며 0점짜리 연료에 묶여 헤어지지 못한다면 전망은 답답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심야시간 <11~7시 사이>대에 버려지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심야전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온돌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최고급 최첨단 에너지를 온돌에 대입시킨다면 100점짜리 연료와 100점짜리 온돌이 짝을지워 대대로 이어져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온돌인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몇년전만 해도 답답했던 가슴이 요즘은 확트이는것 같은 심정을 필자는 느낀다. 과연 어느 난방방법이 온돌의 장점을 따라올 수 있을까. 과연 죽음의 사신인 연료는 언제나 우리 생활에서 멀어지겠는가. 이답은 온돌인 스스로의 판단과 노력에서 짝지워 맺어질 것으로 생각된다.